동남아 선교 운동의 발전

백운영 선교사

지난 수십년간 동남 아시아는 세계 선교의 새로운 중심지로 떠 오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선교의 대상지로만 여겨졌던 지역이 이제는 선교를 보내는 주체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역 교회를 일으키시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복음의 불길을 세계 곳곳으로 옮기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1970 년- 80 년대만 해도 동남아 대부분의 나라들은 서구 선교사들에 의해 복음을 받는 수용자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제 2 차 로잔대회가 1989 년에 마닐라에서 열리고 난 이후에 선교적 도전을 받고 현지 교회들이 자립하려는 양상과 경제와 교육 수준이 향상되면서 서서히 받는 교회에서 보내는 교회로 변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미얀마와 베드남 등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토착적 선교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남아의 선교 운동을 견인하는 가장 큰 동력은 청년세대와 도시교회 입니다. 이들은 영어와 디지털 문화를 능숙하게 활용하며 국경을 넘어 다른 국가의 젊은이들과 교류합니다. 또한 다문화 사회속에서 자라온 이들은 종교적 다양성을 이해하면서도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지혜를 지니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TENTmaker" 인도네시아의 "Mission21" 태국과 베트남의 "NextGen Mission" 과 같은 단체들은 젊은이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웃나라와 중동및 아프리카 까지 파송하는 성숙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남아 선교 운동의 또 다른 특징은 고난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헌신 입니다. 정치적인 제약이나 종교적 압박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 속에서 오히려 복음의 순수함이 빛납니다.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보다 작은 공동체 안에서 조용히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세우는 현지 선교사들의 헌신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떠 올리게 합니다. 재정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물량주의 선교나 프로젝트성 선교가 아닌 삶으로 선교하고 더 중요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은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선교적 모습입니다.

제가 사역하던 인도네시아에서 20 년전에 도전했던 인도네시아 신학생들이 그때부터 아시아 다양한 나라의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지금까지 여전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계속 계속해서 해외로 선교사로 나가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해외 인도네시아 교회가 (일본, 싱가폴, 홍콩과 한국에 있는 인도네시아 교회) 그들을 지원하다가 서서히 인도네시아 국내의 교회들이 선교 헌금과 지원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정이 충분하지 않은 선교로 시작된 선교사들은 오히려 돈 많은 서구나 한국 선교사를 능가하는 모습은 선교는 돈으로 하는것이 아님을 보여 줍니다. 인도나 필리핀 젊은이들은 세계적인 크루즈의 스텝으로 일하면서 주일 예배를 인도하는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으며 또한 신앙적 상담까지 해주는 가장 필요한 선교적 역할을 크루즈 선상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전문인으로 세계 전역으로 퍼져서 가장 필요한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예배가 없는곳에 예배를 세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발적인 선교는 복음이 주는 강력함을 보여줍니다.

최근 동남아 각국의 교회와 선교 단체들은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SEA Missions Network" "Asia 2025 Movement" 같은 연합체들은 선교훈련, 리더십 개발, 선교사 파송의 균형을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서구 교회와 한국 교회가 초기의 주도적 역할을 했다면 이제는 파트너십의 시대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재정적 효율성을 위해서 함께 배우고, 함께 보내며, 함께 관리하는 협력형 선교가 자리잡고 있는 것입니다.

동남아 선교 운동의 발전은 아직 진행형 입니다. 이제는 숫자나 규모보다 지속 가능한 제자화와 지역 중심의 리더십이 더 중요해 졌습니다. 선교의 패러다임이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것" 에서 "함께 배우고 세워가는 것"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동남아 교회가 자신들의 문화와 언어로 복음을 해석하고 세계 선교의 한 축으로 서게될때 하나님 나라의 지경은 더욱 넓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